

성차별적 호칭은 어떻게 살아남는가

– 1990~2025년 전국 일간지의 “여류(女流)” 표현 사례 분석

배홍철*

| 목차 |

1. 서론
2. 이론적 배경
3. 연구의 대상과 방법
4. 분석 결과
5. 결론 및 시사점

| 초록 |

본 연구는 1990-2025년 전국 종합 일간지 9종의 “여류(女流)” 관련 기사 9,089건을 분석하여, 여성 전문가를 지칭하는 성차별적 용어가 살아남게 된 배경을 밝힌다. 한국 언론진흥재단 빅카인즈에서 자료를 수집하여 단어 빈도와 TF-IDF 지표를 집계하고, 구조적 토픽 모델링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시기·매체별 주제 구조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여류”는 정치·외교·문학·미술 등 다수 직군에서는 존재감이 줄어들었지만, 바둑과 일부 공연예술 영역에서는 결합이 강화되거나 단기간 급증하는 양상도 보였다. 또한 역사적 인물을 예스럽게 수식하는 관용적 표현으로 거듭나면서 명맥을 유지하였다. 즉, 성평등한 미디어 지형을 위해서는 차별적 용어의 사용 여부를 단순 점검하는 수준을 넘어, 직군과 시대에 따라 재배치되는 용어의 양상을 추적·점검하는 기준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주제어: 여류, 여성 전문가, 성평등 보도, 보도준칙, 신문 기사, 구조적 토픽 모델링

* 서울시립대학교 realconte@gmail.com

1. 서론

사전적으로 여류(女流)란, ‘전문적인 일에 능숙한 여자’를 뜻한다. 2000년대 이전만 하더라도 “여류”라는 표현은 각 분야의 여성 전문가를 지칭하는 용어로 폭넓게 쓰였다. “여류”는 한 세기 전 대중신문에서부터 흔적을 찾을 수 있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최초의 여성 비행사 권기옥(權基玉, 1901~1988)을 지칭하는 “여류비행가(女流飛行家)”였다(동아일보, 1926).

그로부터 100여 년이 지난 오늘날의 언론 지형에서 “여류비행가”라는 용어는 쉽게 눈에 띄지 않는다. “여류”라는 표현도 꾸준히 줄어드는 추세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미디어 플랫폼 빅카인즈에서 “여류”의 등장 빈도 추이를 살펴보면 2016년을 기점으로 빠르게 감소하였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성평등 보도 준칙의 확산과 언론의 성찰이 만들어 낸 긍정적 변화라 할 것이다. 하지만 특정 분야에 한해서는 오히려 증가세를 나타냈는데, 대표적인 예가 “여류바둑기사”다. 국내 여성 바둑기사들의 활약에 힘입어 관련 소식이 많아졌고, 그 과정에서 “여류”라는 용어도 자주 쓰이게 된 결과였다. “여류”의 의미가 바뀌어 살아남은 사례도 있다. “여류 화가”가 그중 하나다. “여류”는 오늘날 활동하는 여성 미술가를 언급할 때는 좀처럼 쓰이지 않지만, 역사에 이름을 남긴 여성 대가를 뜻하는 고풍스러운 말로 등장한다.

이처럼 “여류”라는 성차별적 언어는 사라지지 않았다. 직군을 옮기고 의미를 바꾸며 재배치되었을 뿐이다. 이제 문제 삼아야 할 것은 차별적 표현이 얼마나 남았는가가 아니라, 그것이 어떠한 방식으로 생존했는가이다. 본 연구는 ‘여류’라는 표현의 존속을 단순히 비판하는 데서 나아가, 그것이 직군과 시대를 가로지르며 재배치·재기능화되는 과정을 통해 젠더 위계가 어떻게 재생산되고 있는지 규명하고자 한다. 연구의 대상과 방법으로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미디어 플랫폼 빅카인즈에서 1990년부터

2025년까지 간행된 전국 일간지 9종의 기사 가운데 “여류”가 등장한 9,089건을 대상으로, 빈도 분석과 구조적 토픽 모델링(Structural Topic Modeling)을 적용한다. 이를 통해 젠더 위계를 재생산하는 차별적 호명의 작동 조건을 드러내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1) 미디어가 여성 전문가를 재현하는 방식

다양한 고전적 연구들은 미디어가 여성을 재현하는 과정에서 일으키는 과장과 생략, 확대와 축소의 양상들을 지적해왔다. 대표적으로 토크먼(Tuchman, 1978)은 대중매체가 여성의 존재를 지우거나 주변화하는 관행을 상징적 말소(symbolic annihilation)라는 개념으로 제시하면서, 여성 인물이 아예 등장하지 않거나, 등장하더라도 전통적 젠더 역할에 한정된 모습으로만 다루지는 문제를 비판했다. 고프먼(Goffman, 1979)은 미디어가 특정 직업과 관련 종사자를 다루는 방식에도 젠더의 문제가 개입한다고 보았다. 직업의 내용 자체보다는 ‘누가’, 구체적으로는 어떤 ‘성별’이 그 일을 하는가가 중요한 의제로 다루어진다는 의미다.

특히 여성 정치인을 조명한 연구들은 미디어가 여성 정치인의 정책이나 전문성보다는 성별, 외모, 가족 역할 등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고 지적한다(Gidengil & Everitt, 1999; Ette, 2020). 미디어의 시선(media gaze)이 여성 전문가의 역량보다는 머리 모양·옷차림·체중·자녀 여부와 같은 부수적 요소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이다. 미디어의 편향성은 정량적인 지표로도 나타난다. 정치 이슈 보도에서 여성 전문가는 남성 전문가에 비해 적게 인용될 뿐 아니라, 동일한 수준의 전문성을 갖추었을 때도 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전문성 부족에 대해서는 더 가혹한 평가를 받기도 한다

(Ozer, 2023).

관행적 재현 방식은 여성 경영인을 다룬 보도에서도 나타난다(김희진 · 이수민, 2012). 여성은 기업의 의사결정 주체보다 워킹맘과 같은 정체성으로 소개되는 일이 많다. 스포츠 보도 분야도 다르지 않다(유상건, 2016). 여성 감독은 남성 감독과 달리 “엄마/언니 리더십”과 같은 성별 특성에 얽매이곤 한다(서재철 · 문민권 · 박찬우, 2018).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여성이 전문가 이전에 “여성”으로 호명되는 구조, 다시 말해 직업 재현의 차원에서 젠더 위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준다.

2) 직업 명칭에 나타나는 성차별적 표현

여성 전문가는 남성과 달리 독자적인 칭호를 부여받기도 한다. 본 연구가 주목하는 “여류”라는 말이 대표적이다. 직업에 성별을 표시하는 일은 어떤 업무가 어느 성별에 더 어울리는지에 대한 사회적 기대를 언어에 새겨 넣는 관행이기도 하다. 영어의 fireman이나 policeman처럼 남성형을 기본으로 두는 직함은 남성을 그 직업의 기본 수행자로, 여성을 예외적인 수행자로 상정하는 체계를 반영한다. 우리말에서는 여의사, 여교수와 같이 여성에게만 성별을 덧붙이는 호칭이 널리 쓰여 왔다. 남성은 비표지(unmarked) 집단으로, 여성은 표지된(marked) 집단으로 규정되어 온 것이다(Goffman, 1977).

문화적 배경에 따라 명명의 방식은 다르지만, 성별화된 직업 호칭은 사람들의 인식과 판단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친다(이정복, 2010; 박은하, 2019). 가령 직업명에서 남성형을 기본값으로 사용할 경우, 직업 수행자를 자동적으로 남성으로 떠올리는 경향이 강해지고 여성 수행자의 존재 가능성은 낮게 그려진다(Sczesny et al., 2016). 실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실험 연구(Verveckken et al., 2013)는 젠더 중립(gender-fair)적 직업 표현을 사용할 경우, 남녀 아동 모두 해당 직업군에서 여성의 비율을 상대적으로

로 높게 추정한다는 결과를 얻기도 하였다. 성별을 “기본 수행자(default job holder)”로 상징하는 언어 관습이야말로 성 역할을 공고히 하는 원인 중 하나임을 드러낸 셈이다.

성별 표시가 갖는 영향력은 업무의 특징을 설명하는 방식을 통해 더욱 강화된다. 대학생 대상의 채용 공고를 분석한 연구(Gaucher et al., 2011)에 따르면 남성이 많이 종사하는 직종의 공고에서는 전통적인 남성성을 시사하는 단어가 더 자주 등장하고, 그로 인해 여성들은 이 직업이 덜 매력적이라고 평가하며 지원 의향도 낮았다. 직업을 설명하는 몇몇 단어들이 특정 성별에게는 배제의 신호로 읽힐 수 있다는 이야기다.

2000년대 국내에서도 성차별적 언어가 범람하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었다. 대표적으로 2007년 국립국어원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신문, 방송, 광고, 출판 영역을 조사하여 『성차별적 언어 표현 사례조사 및 대안마련을 위한 연구』를 발표했다(안상수·백영주·양애경·강혜란·윤정주, 2007). 이 연구는 국내 대중 매체의 성차별적 표현을 체계적으로 수집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이후 다양한 신문 및 방송 언어 연구(이주행, 2003; 양영하, 2011; 조태린, 2017)의 필요성을 제기했으며, 나아가 보도준칙의 탄생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2011년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기자협회는 <인권보도준칙>을 공동 제정하면서 성평등 항목을 두어 “언론은 성별과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강화하는 성차별적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명시하였다(국가인권위원회·한국기자협회, 2011). 또한 세부 조항에서 성별을 불필요하게 드러내는 호칭, 특정 성에만 특정 직업·역할을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표현, 가부장적 표현 등을 지양할 것을 요구하고, 성적 대상화·성 상품화 보도를 자제할 것을 촉구했다.

근래에는 전국언론노동조합 성평등위원회가 2023년 『젠더 보도 가이드라인』을 발간하여 성평등 보도를 위해 지양해야 할 관행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위원회는 특별한 맥락 없이 성별에 따른 비대칭적 어휘를

사용하지 않을 것을 권장하면서 대표적인 사례로 “여류”를 지목하였다(전국언론노동조합 성평등위원회, 2023:21). 여성을 예외적인 수행자로 상정하는 효과를 낳는다는 점에서 문제적 표현으로 분류하고 있다.

3) 연구 문제 설정

다수의 선행연구와 언론계의 노력에 힘입어 미디어에서 성차별적 용어가 등장하는 일은 과거에 비해 많이 줄어든 상황이다. 앞서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여류”는 2016년을 기점으로 빠르게 감소하였다. 하지만 성차별적 용어의 사용이 줄어들었다고 하여 성차의 위계까지 약화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성별화된 용어인 “여류”가 일부 영역에 집중적으로 남는 양상이 관찰되기 때문이다. 성차별적 표기가 특정 직업에 몰리는 현상은 그 직업군 자체에 새로운 정체성이 새겨질 수 있음을 암시한다(허은, 2013). “여류”라는 표식이 되풀이될수록 그 직업군은 직무 난이도나 전문성과는 별개로 여성의 직업이라는 상징을 떠안게 될 여지가 있다. 여성에게는 여성으로서 선택할 만한 직업이라는 자기 인식을, 남성에게는 본업이 되기에는 덜 매력적인 영역이라는 인식을 강화하면서, 직업군 자체에 성적 특성을 부여하는 것이다(Formanowicz et al., 2013). 전국언론노동조합 성평등위원회(2023:68) 역시 “남성적 영역으로 여겨지는 분야(경제, 정치 등)”와 “여성적 영역(소비, 문화 등)”이 고착화되는 현실을 우려하고 있다. 실제 “여류”라는 용어는 20세기까지만 하더라도 “여류 비행사”를 비롯해 “여류 대통령”, “여류 변호사” 등 다양한 분야의 여성 전문가를 지칭하는 용어로 쓰였다. 그러던 것이 언젠가부터 문화·예술 영역에 한정하여 등장하는 중이다. 이런 점을 고려해볼 때 “여류”는 새로운 직업군으로 무대를 옮겨가는 방식으로 명맥을 이어가고 있을 여지가 있다.

“여류”를 둘러싼 환경에서 변화한 요소는 직업만이 아니다. 모든 언어가 그렇듯이 차별적 표현 또한 사회 변화에 발맞추어 변화한다(김지혜,

2022). 오늘날 문화예술 영역에서 “여류”라는 용어는 더 이상 여성 전문가라는 의미에 머물지 않는다. 예술계의 여성 원로, 굵직한 업적을 기록한 여성 위인, 최초의 타이틀을 가진 여성 인사들을 고풍스럽게 수식하는 수사(rhetoric)로 등장한다.

본 연구는 이 지점에서 출발한다. 다수의 기관 및 언론사가 보도 준칙을 내걸고 성차별적 용어를 포위한 상황에서도 “여류”라는 말은 어떻게 살아남았을까? 즉, 성차별적 용어의 지속 가능성을 구조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단초를 찾으려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이를 위해 연구자는 다음의 문제를 설정하고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문제1. “여류”는 어떠한 주제 혹은 직군을 경유하여 지금에 이르렀는가?

연구문제2. “여류”의 의미는 어떻게 재편되고 있는가?

3. 연구의 대상과 방법

1) 연구의 대상

본 연구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제공하는 뉴스 데이터베이스 빅카인즈(BigKinds)를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빅카인즈는 국내 신문 기사를 통합 수집·관리하는 플랫폼으로, 1990년 이후 생산된 기사에 대해 검색과 통계 분석 기능을 제공한다. 이 가운데 전국 단위 종합 일간지 9종(중앙일보, 동아일보, 경향신문, 세계일보, 서울신문, 문화일보, 국민일보, 한국일보, 한겨레)을 연구 대상으로 한정하여 일반 뉴스 의제를 포괄적으로 다루는 매체의 보도 지형에 초점을 맞추었다. 조선일보의 경우 2018년 이전의 기사는 제공하지 않아 연구에서 제외하였다.

연구 대상의 수집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검색어 “여류”를 포함하는 기사를 조건으로 설정하고, 1990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생산된 기사 자료로 분석용 코퍼스를 구축하였다. 연구 시기를 1990년으로 설정한 것은, 2000년 전후를 기점으로 “여류”의 직업군 구성에 뚜렷한 변화가 감지되었기 때문이다. 가령 1990년대에는 “여류 화가”를 포함한 미술 영역의 비중이 두드러지지만, 2000년대 이후에는 “여류 바둑기사” 보도가 증가했다. 이러한 대목을 고려하여 1990~2025년 사이 간행된 9개 종합 일간지의 기사 9,089건을 최종 연구 대상으로 확정하였다.

한편 한국언론진흥재단 빅카인즈는 각 언론사의 저작권을 보호하고자 기사 원문 전체는 제공하지 않는다. 독자적인 형태소 분석기(Bareun)를 적용한 명사 토큰화(tokenized) 데이터만을 공개하고 있다. 명사형 토큰으로 구성된 데이터 구조는 문장 수준의 문맥 분석이나 발화 주체 분석에는 제약을 주지만, 단어의 동시 출현 패턴과 분포 기반의 방법론에는 오히려 유리하다. 이에 본 연구는 명사 토큰 정보와 기사 단위 메타데이터(발행일, 발행처 등)를 활용할 수 있는 BOW(Bag of Words) 기반의 빈도 분석과 토픽 모델링을 연구 방법으로 선정하여 데이터 구조와의 적합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2) 연구의 방법

연구 방법은 크게 두 층위로 구성된다. 첫째는 단어 빈도와 분포에 기반한 기술적 분석이다. 기술적 분석 단계에서는 “여류” 관련 기사에 등장하는 단어의 출현 빈도와 TF-IDF(term frequency-inverse document frequency) 값을 계산하여, 어떤 직업군과 주제들이 상대적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지를 파악하였다. TF-IDF는 개별 단어의 출현 빈도와 희귀성을 동시에 고려한 지표라는 점에서 다양한 세부 주제를 가늠하기에 효과적이다.

둘째는 토픽 모델링을 활용한 잠재 주제 구조와 시간·매체별 변화를 추적하는 분석이다. 토픽 모델링은 대규모 문서에서 단어들의 동시 출현 패턴을 분석하여 N개의 토픽을 추출하는 비지도 학습 기법으로, 문서 간 유사성과 주제 구조를 파악하는 방법이다. 그중에서도 각 토픽을 단어 분포로 가정하는 확률 모형인 잠재 디리클레 할당(Latent Dirichlet Allocation, LDA)은 오랫동안 사회과학 연구 전반에서 활용되고 있다(Blei, Ng, & Jordan, 2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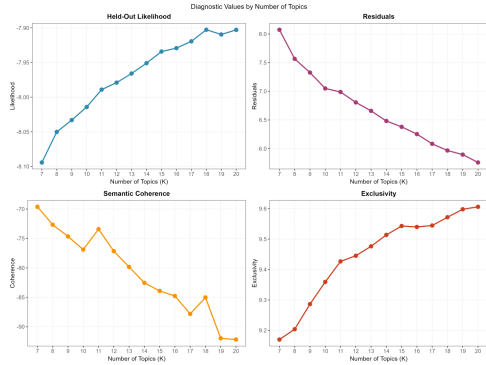
근래에는 LDA 모형을 확장하여 문서 수준 공변량을 토픽 분포와 토픽 내용에 직접 연계할 수 있도록 설계된 구조적 토픽 모델링(Structural Topic Modeling, 이하 STM)을 적용한 연구들이 주목받고 있다(Roberts et al., 2013). STM은 발행일이나 발행처 같은 각 문서의 메타데이터에 따라 주제의 비중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한다. 즉, 시기별·매체별 토픽 비중의 변화를 추적하는 데 효과적인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STM의 강점을 활용하여 “여류” 관련 기사의 주제들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언론사별로 나타나는 차이는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STM의 적용에 앞서 자료의 전처리와 차원 축소를 진행하였다. 먼저 불용어 처리 단계에서 “경우”, “이날”과 같은 단어처럼 여러 문서에 등장하지만 주요 내용과는 접점이 적은 명사 토큰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아이들”과 “아동”, “여자”와 “여성”과 같이 의미상 동일한 단어쌍들은 “아동”, “여성” 등으로 유의어 처리하였다.

마지막으로 “여류” 토큰을 분석 단계에서 제거하였다. “여류”는 연구 대상을 구성하는 핵심 검색어지만, 모든 문서에 포함되어 있어 토픽 구분에 기여하지 못하고 계산량만 늘리는 변수에 가깝다. 따라서 문서 전체에 균등하게 분포한 단어를 제거하여 어휘 공간을 줄이고 토픽 간 차이를 보다 잘 드러낼 필요가 있다(Grimmer & Stewart, 2013). 이와 같이 불용어 처리와 유의어 통합, 핵심 검색어의 제거를 통해 단어-문서 행렬의 차원을 조정된 뒤 STM을 추정하였다.

3) STM 토픽수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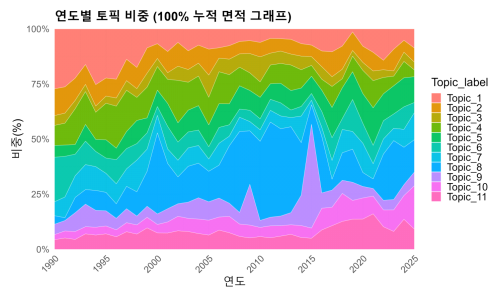
토픽 모델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토픽 수를 결정하는 일이다. 최적의 토픽 수를 결정하고자 stm 패키지의 searchK 함수를 이용하여 토픽 수 7에서 20까지 설정한 뒤, 네 가지 진단 지표(held-out likelihood, residuals,



〈그림 1〉 토픽수 7~20개의 4대 지표 계산 결과

semantic coherence, exclusivity)를 계산하였다(Roberts et al., 2019). 〈그림 1〉은 각 지표의 변화를 시각화한 결과로, 토픽 수가 증가할수록 held-out likelihood는 전반적으로 향상되고 residuals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반면 semantic coherence와 exclusivity는 서로 상충하는 경향을 보여, 일정 수준 이후에는 토픽을 늘릴수록 주제 간 구분은 뚜렷해지지만 개별 토픽 내부의 결속력은 떨어지는 양상이 나타났다. 본 연구는 모든 지표가 안정적인 균형점을 보이는 K=9-12 사이에서 의미적 일관성(semantic coherence)이 가장 높은 K=11을 최종 토픽 수로 선정하고 분석을 진행하였다.

〈그림 2〉는 11개 토픽의 연도별 비중 변화를 표현한 그래프로, 각각의 토픽이 시기별로 확대 혹은 위축되는 양상을 보여준다. 토픽별 세부 내용은 4장에서 후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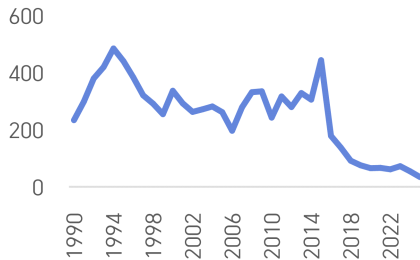
〈그림 2〉 토픽수 11개의 비중 추이

한편 전처리와 기초 분석은 파이썬 3.11.0 환경에서 공개 라이브러리를 활용하여 실행하였으며, 분석 코드와 결과는 주피터 노트북(ipynb) 형식으로 저장하여 연구 과정의 투명성과 재현 가능성을 확보하였다.¹⁾ 단 STM 알고리즘은 아직 파이썬 환경에서 활용할 수 없어 R을 이용하였으며 콰르토(qmd) 형식으로 기록하였다.

4. 분석 결과

1) 기초 분석 결과

〈그림 3〉은 연간 기사 건수의 추이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세부 살펴보면 1990년대 중반까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점진적인 감소세를 나타냈다. 이후 2015년 급등했지만 2016년을 기점으로 빠르게 감소했다.



〈그림 3〉 “여류” 관련 기사수 추이

다. 2015년 나타난 증가세는 영화 〈도리화가〉의 개봉과 맞물리며 “여류 판소리꾼”이라는 표현이 급증한 결과였다.

반면 2016년부터 “여류”라는 용어가 눈에 띄게 줄어든 이유는 하나로 단

1) 연구 과정에서 작성한 코드 및 분석 결과 자료는 다음 GitHub 저장소를 통해 공개하였다. 언론사별 보도 건수 세부 내역, 빈도수 상위 300개 단어, 연도별 상위 20개 단어 등의 기초 분석 결과는 authoress_Freq.xlsx에서 확인할 수 있다. 토픽 모델링 분석 결과의 세부 내용, 각 토픽별 상위 50개 문서 목록은 STM_11.xlsx에 수록하였고, 토픽별 추이 및 언론사별 분석 결과 그래프는 각 STM_11 폴더에 정리하였다.
<https://github.com/Fix8inSex/Marking-Women-Exper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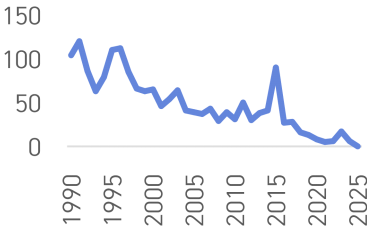
정하기 어렵다. 정황상 2016년 강남역 살인 사건 이후, 젠더 문제가 우리 사회의 새로운 현안으로 부상하면서 미디어가 성차별적 용어에 대해 보다 민감해진 결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그런데 각 언론사별 추이를 살펴보면 2016년 젠더 관련 이슈만으로 “여류”라는 용어의 퇴장을 온전히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표 1〉 언론사별 “여류”가 등장하는 기사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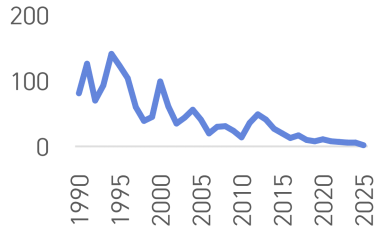
발행처	중앙 일보	동아 일보	경향 신문	세계 일보	서울 신문	문화 일보	국민 일보	한국 일보	한겨레	계
기사(건)	1,751	1,598	1,225	926	851	802	783	755	398	9,089
비율(%)	19.26	17.58	13.47	10.18	9.36	8.82	8.61	8.3	4.37	100

〈표 1〉은 언론사별 “여류”가 등장한 기사 수를 정리한 것이다. 단순 기사 건수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인 것은 중앙일보, 동아일보 순이었다. 〈그림 4〉와 〈그림 5〉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양 신문사는 1990년대 초반 높은 건수를 나타냈다. 하지만 90년대 후반부터 가장 빠르게 줄어들었다. 감소세는 2000년대까지 이어졌고 2010년대 들어와서는 여타 언론사와 대동소이한 수준을 유지했다. 반면 세 번째로 높은 숫자를 기록한 경향신문은 90년대까지만 해도 앞선 두 언론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기록했지만, 2000년대부터는 홀로 증가세를 보였고 이러한 흐름은 2015년까지 이어졌다(〈그림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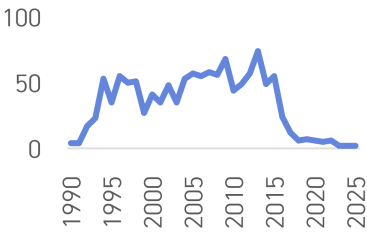
한편 한겨레신문은 9개 신문사 중 “여류” 표현을 가장 적게 사용했지만, 〈그림 7〉에서 드러나듯이 2010년 전후 오히려 증가세를 보이며 여타 신문사보다 많은 건수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밖에 〈그림 8〉 문화일보와 〈그림 9〉 서울신문의 경우에는 특정 시점을 전후로 급등했다가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며 다른 언론사와 차별점을 나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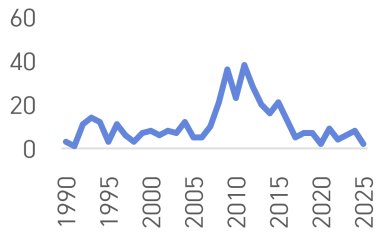
〈그림 4〉 중앙일보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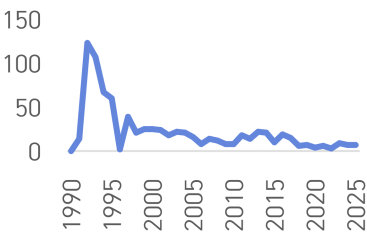
〈그림 5〉 동아일보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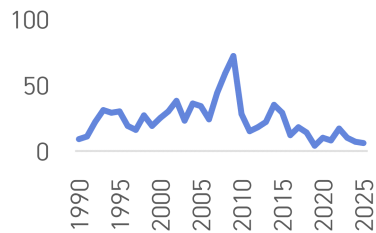
〈그림 6〉 경향신문의 추이



〈그림 7〉 한겨레신문의 추이



〈그림 8〉 문화일보의 추이



〈그림 9〉 서울신문의 추이

이처럼 언론사별 추이는 “여류”라는 용어가 시기별 의제나 발행처의 의중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차별적 용어의 증감만으로 전체 언론 지형을 진단하거나 특정 언론사의 성향을 가늠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하는 셈이다. 이어서 전체 기사에 등장한 단어의 빈도분석 및 TF-IDF 지표를 살펴보았다.

〈표 2〉 빈도수 및 TF-IDF 상위 10개 단어

빈도수 순					TF-IDF순(빈도수 상위 300개 중)			
순위	단어	빈도수	TF-IDF	기사수	단어	빈도수	TF-IDF	기사수
1	여성	10,334	0.012639	3,205	나혜석	574	0.295261	157
2	한국	8,839	0.015243	3,425	루이	2,231	0.277127	725
3	인간	8,648	0.007746	3,371	노래	1,205	0.264717	670
4	작가	8,388	0.020883	3,211	가정	518	0.235091	359
5	작품	7,972	0.013086	3,089	소설	4,163	0.197037	1,538
6	바둑	6,642	0.089075	1,497	강연	556	0.184175	324
7	세계	5,188	0.009634	2,647	우승	2,658	0.177731	1,049
8	일본	5,102	0.077042	1,910	뮤지컬	683	0.158914	259
9	영화	4,956	0.017942	1,406	명창	719	0.148217	221
10	사랑	4,860	0.011714	2,028	타이틀	922	0.14017	532

〈표 2〉는 빈도수 및 TF-IDF 기준 상위 10개 단어를 정리한 것으로, “여류”가 어떠한 직업군과 주로 이어지는지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작가”, “작품”, “영화”, “노래”, “소설”, “뮤지컬”처럼 문화예술 직군이 뚜렷한 존재감을 나타냈으며, 이밖에 “바둑”과 여성 바둑 기사 “루이(나이웨이)”가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 이러한 기초 빈도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절에서는 11개 토픽의 구조와 시기별 비중 변화를 통해 “여류” 보도 기사의 장기적 재편 양상을 입체적으로 살펴보았다.

〈표 3〉 토픽별 기여도 상위 10개 단어

주요 주제	토픽 번호	비중 (%)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6순위	7순위	8순위	9순위	10순위
여성학의 근거	4	11.69	작가	소설	인간	작품	사랑	이야기	세계	미국	자신	프랑스
			(0.0244)	(0.0241)	(0.0179)	(0.0127)	(0.0118)	(0.0094)	(0.0081)	(0.0076)	(0.0068)	(0.0066)
	6	7.59	시인	문학	작가	한국	교수	작품	시집	소설	소설가	문단
			(0.0319)	(0.0279)	(0.0191)	(0.0123)	(0.0123)	(0.0115)	(0.0106)	(0.0088)	(0.0086)	(0.0073)
여류의 직군	1	12.28	작품	전시	작가	회화	미술	개인전	화가	한국	서울	직업
			(0.0303)	(0.0264)	(0.0245)	(0.0185)	(0.0159)	(0.0111)	(0.0109)	(0.0076)	(0.0072)	(0.0072)
	8	17.86	바둑	기사	대회	우승	한국	중국	루이	여성	세계	프로
			(0.0380)	(0.0162)	(0.0160)	(0.0150)	(0.0146)	(0.0129)	(0.0128)	(0.0118)	(0.0108)	(0.0097)
음악과 공연	7	7.79	공연	음악	무대	연주	연극	소리	피아노	판소리	명창	뮤지컬
			(0.0235)	(0.0158)	(0.0129)	(0.0117)	(0.0108)	(0.0090)	(0.0085)	(0.0079)	(0.0069)	(0.0067)
	2	8.23	일본	중국	한국	대통령	미국	북한	정부	인간	정치	사건
			(0.0192)	(0.0139)	(0.0125)	(0.0099)	(0.0097)	(0.0078)	(0.0075)	(0.0074)	(0.0045)	(0.0045)
용범의 재편	10	5.14	문화	한국	지역	서울	도시	역사	행사	건물	조선	여행
			(0.0167)	(0.0125)	(0.0100)	(0.0078)	(0.0064)	(0.0061)	(0.0057)	(0.0052)	(0.0048)	(0.0048)
	11	6.91	여성	남성	남편	사회	자신	결혼	인간	어머니	아내	나혜석
			(0.0819)	(0.0243)	(0.0113)	(0.0109)	(0.0108)	(0.0089)	(0.0088)	(0.0048)	(0.0047)	(0.0045)
치유의 낭송	5	8.48	인간	사랑	마음	시인	자신	어머니	이야기	세상	아버지	노래
			(0.0232)	(0.0129)	(0.0104)	(0.0085)	(0.0072)	(0.0068)	(0.0067)	(0.0066)	(0.0053)	(0.0052)
	9	8.96	영화	감독	드라마	작품	배우	사랑	연기	출연	수지	개봉
			(0.0527)	(0.0225)	(0.0134)	(0.0112)	(0.0110)	(0.0086)	(0.0081)	(0.0081)	(0.0078)	(0.0076)
단발성 이슈	3	5.07	아동	행사	환자	강연	미국	독일	인간	인터넷	지원	치료
			(0.0089)	(0.0078)	(0.0067)	(0.0057)	(0.0050)	(0.0049)	(0.0048)	(0.0048)	(0.0048)	(0.0048)

2) 토픽 분석 결과

STM으로 도출한 11개 토픽의 지형을 소개하고자 각 토픽의 비중과 상위 단어를 <표 3>으로 정리하였다. 본 절에서는 주요 연구 문제에 집중하고자 11개의 토픽을 세 개의 대주제로 재분류하였다. 먼저 ‘여류의 직군’에서는 ‘여류’라는 낱말이 어떤 직업군에 고착되는지 살펴본다. ‘용법의 재편’에서는 “여류”가 과거와는 다른 맥락에서 소환되어 새로운 의미를 부여 받는 양상에 초점을 둔다. 마지막 ‘단발성 이슈’라는 주제에서는 성차별적 용어가 일회성 이슈에 노출되는 부분을 조명하였다.

(1) 여류의 직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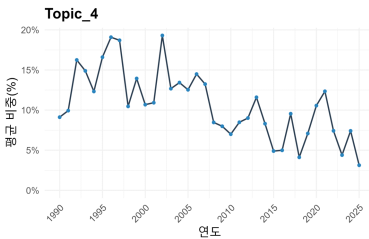
이 범주에는 문학, 미술, 바둑, 공연예술, 정치·외교 등 특정 직업 영역을 중심으로 형성된 토픽들이 포함되었다. 먼저 문학 분야를 보면, 토픽 4와 토픽 6이 1990년대와 2000년대 초기까지 높은 비중을 나타냈다(<그림 10>, <그림 11>). 두 토픽은 소설가·시인·문학평론가 등 문학장 안팎의 여성 활동을 다루는 기사들로 구성되며, 이 시기 문학 분야 여성 창작자를 “여류 작가”, “여류 시인”으로 소개하는 관행이 광범위하게 남아 있었음을 보여준다. 두 토픽의 그래프는 2000년대 이후 점차 비중이 줄어드는 흐름을 나타냈는데, 문학 영역에서 “여류”라는 표식이 서서히 퇴조하였음을 환기한다.

토픽 1은 미술 분야를 대변한다. <그림 12>를 보면 1990년대에는 문학과 함께 높은 비중을 차지했지만 1990년대 말부터 빠르게 쇠퇴했다. 이밖에 토픽 7(음악과 공연, <그림 13>)은 시기에 따라 증가와 감소를 되풀이하며 일정 수준의 비중을 유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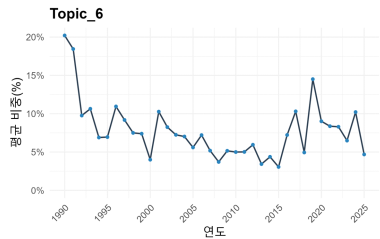
정치·외교 영역에 해당하는 토픽 2는 다른 토픽에 비해 비중이 크지 않았고, 특정 시기 이후로는 눈에 띄는 변화도 보이지 않았다(<그림 14>).

반면 바둑과 관련된 토픽 8은 유일하게 상승 곡선을 그렸다(<그림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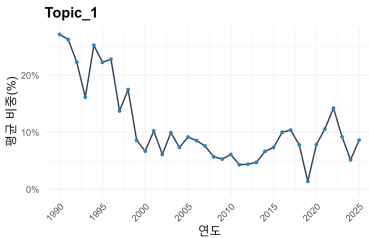
여성 프로기사의 등장과 국제대회 성과가 언론의 주목을 받으면서, “여류 기사”라는 표현이 증가한 결과라 할 수 있다. 특히 다른 직군의 비중이 정체되거나 감소하는 가운데에도 혼자 증가세를 나타냈다는 점에서 주목해야 할 토픽 중 하나다. 문학·미술에서 점차 퇴조하던 “여류”라는 표식이 바둑이라는 특정 직군에 집중하면서, 오히려 더 강하게 결합하는 과정이 포착된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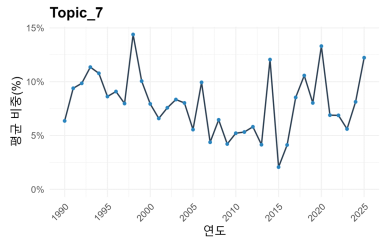
〈그림 10〉 토픽 4(문학장의 여성들1)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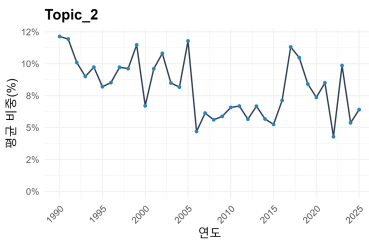
〈그림 11〉 토픽 6(문학장의 여성들2)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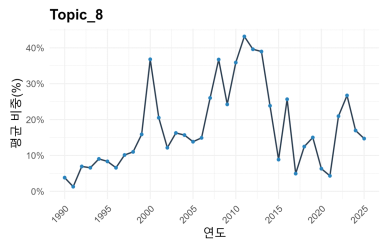
〈그림 12〉 토픽 1(미술과 전시)의 추이



〈그림 14〉 토픽 7(음악과 공연)의 추이



〈그림 14〉 토픽 2(정치와 외교)의 추이



〈그림 15〉 토픽 8(바둑과 승부)의 추이

위 토픽들의 연도별 추이를 종합해 보면, “여류”라는 호칭의 사용이 감소한 것은 사실이지만 모든 영역에서 균등하게 일어나지는 않았다. 성차별적 용어는 문학과 미술, 정치·외교 분야에서는 일찍부터 줄어들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바둑과 공연예술 일부에서는 기존의 관습이 유지되어 상대적으로 존재감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점에서 ‘여류의 직군’ 범주는 “여류”라는 표식의 이동 경로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2) 용법의 재편

이 범주에는 토픽 10(역사 속 여성), 토픽 11(젠더와 비판의식), 토픽 5(치유의 낭송)가 포함된다. 세 토픽은 “여류”가 “여성 전문가”라는 기존의 의미와는 다른 뜻으로 활용되는 사례들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세 토픽은 2016년을 전후해 비중이 상승했다는 공통점으로도 묶을 수 있다(그림 16-18)). 젠더가 우리 사회의 주요 의제로 부상한 상황에서 정체성의 변화를 통해 생존한 토픽들이라는 점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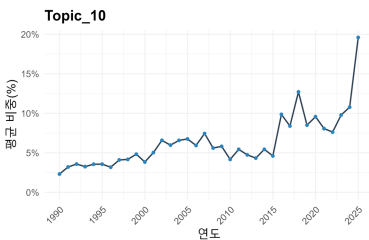
토픽 10(역사 속 여성)의 경우, 2010년대까지도 뚜렷한 존재감을 보이지 못했다가 최근에 와 비중이 높아진 항목이다(그림 16)). 조선시대 예술가나 근대 여성 지식인, 지역 문화행사에서 재조명되는 여성 인물 등이 “여류 ○○”라는 옛 표현과 함께 언급되는 기사들이 여기에 포함된다. 과거의 여성 예술가·전문인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당시의 호칭을 인용하거나, “당대에는 ‘여류 ○○’로 불렸다”는 식으로 설명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여류”는 현재의 직업 호칭이라기보다 역사적 맥락을 환기하는 인용구에 가까운 용례를 점점 더 많이 갖게 된 결과라 할 수 있다.

토픽 11(가부장제 비판)은 전통적 가족제도와 관련 어휘들로 밀집된 토픽이다. <그림 17>을 보면 2010년대 이전까지 비중이 거의 없던 이 토픽은 2016년을 기점으로 그 비중을 크게 높여더니 일정 수준을 유지했다. 강남역 살인 사건 이후 젠더 폭력, 혐오 표현, 가부장제 비판을 전면에 내세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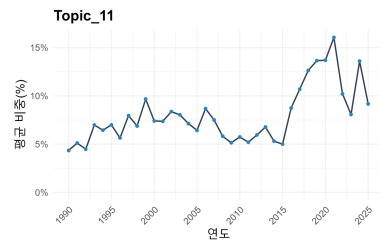
칼럼·기획 기사 속에서, 성차별적 표현을 상징하는 장치로 자주 동원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토픽 11에서 “여류”란, 여성에게만 붙였던 표식의 비대칭성과 차별성을 비판적으로 환기하는 기호로 기능한다.

토픽 5(치유의 낭송) 역시 2010년대 이후 비중이 높아진 주제이지만, 세부 내용은 토픽 11과 대비를 이룬다. 이 토픽은 “사랑”, “마음” 등 감정에 호소하는 단어가 중심을 이루며, 주로 시 낭송회, 북콘서트, 치유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기사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18>에서 나타나듯이 2010년대 중반 이후 비중이 서서히 올라가는 양상을 보이는데, 이 과정에서 여성 시인이나 낭송가를 “여류 시인”, “여류 낭송가”로 부르면서 개인의 생애사와 감정 노동을 전면에 내세우는 보도가 눈에 띈다. 2016년 강남역 사건을 기점으로 강화된 젠더의식과는 별개로 여성의 경험과 목소리를 치유·공감의 언어로 포장하는 흐름 속에서 “여류”라는 표식이 정서적 친근감과 함께 소비되는 양상을 엿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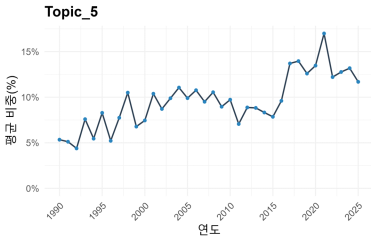
세 토픽은 “여류”라는 표현이 젠더 관계를 둘러싼 재검토와 역사적 재독해의 맥락 속에서 등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에서는 “여류 ○○”가 성차별적 보도의 관행을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인용구로 쓰이고, 다른 한편에서는 여성의 삶과 정체성을 전면에 내세운 감수성의 상징으로 활용된다. 2010년대 후반부터 비중이 높아진 위 범주들은 “여류”라는 말이 단순히 줄어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의제들과 결합하거나 용어의 정체성을 탈바꿈하는 방식으로 재배치되었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림 16> 토픽 10(역사 속 여성)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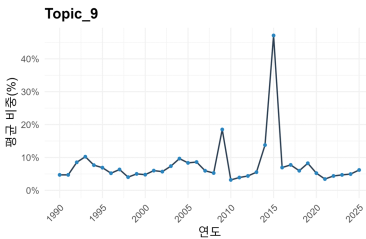
<그림 17> 토픽 11(젠더와 비판의식)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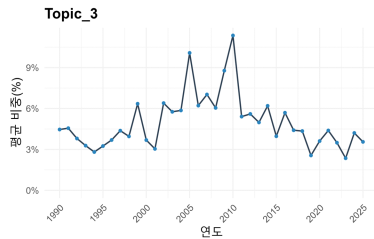
〈그림 18〉 토픽 5(치유의 낭송)의 추이

(3) 단발성 이슈

토픽 9(영화홍보)와 토픽 3(여성의학)은 특정 시점에서만 나타난 일회성 사례들이다. 토픽 9는 2015년 영화 <도리화가> 개봉과 함께 “여류 판소리꾼”을 전면에 내세운 홍보·기획 기사와 관련되어 있으며, 토픽 3은 여성 류마티스 관절염 캠페인과 연계된 의료·공익 기사에서 “여류” 표현을 반복 사용한 결과로 형성되었다.



〈그림 19〉 토픽9(영화홍보)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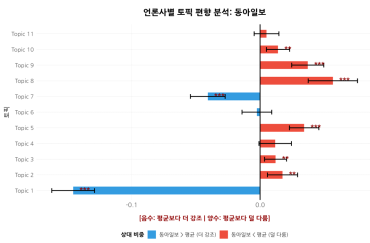


〈그림 20〉 토픽3(여성의학)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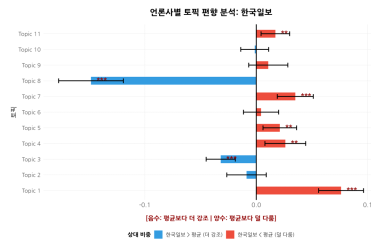
두 토픽은 단발성 이벤트만으로도 “여류” 사용량이 단기간에 증가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여성 류마티스 관절염 캠페인의 경우는 캠페인 명칭 자체에 “여류(여성+류마티스)”가 포함되어 있어, 기사 작성자가 표현을 바꾸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2015년 영화 <도리화가>의 경우, 영화의 공식 홍보 문구인 “조선 최초 여류 소리꾼의 이야기”를

그대로 옮기는 과정에서 “여류”라는 표현이 언론 전반에 노출된 결과다. 두 토픽은 외부에서 제공하는 보도 자료 및 홍보 문구에 기반한 기사의 경우, 보도준칙이 쉽게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을 시사한다. 즉, 지금의 언론 지형에서는 성중립 보도준칙을 비껴가는 일이 언제라도 되풀이될 수 있다는 점을 환기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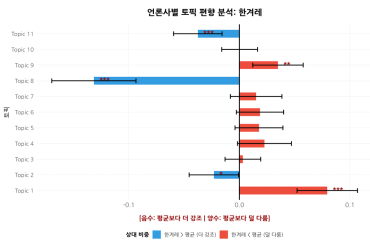
3) 언론사별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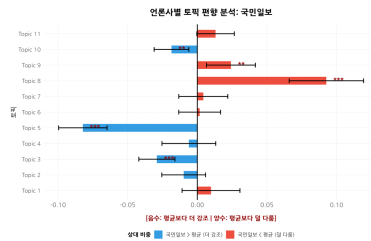
〈그림 21〉 동아일보의 토픽 편향 분석



〈그림 22〉 한국일보의 토픽 편향 분석



〈그림 23〉 한겨레신문의 토픽 편향 분석



〈그림 24〉 국민일보의 토픽 편향 분석

언론사별 토픽 비중을 살펴보면, 앞서 본 기사수 추이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1-24〉는 각 언론사가 “여류” 관련 보도에서 어떤 직군과 주제에 더 무게를 두었는지 보여주는 그래프다. 막대가 좌측(음수)으로 길어질수록 관련 토픽의 비중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토픽 편향 분석의 결과는 기술 분석에서 확인한 각 언론사의 연도별 기사

수 및 추이(〈표 1〉, 〈그림 4·9〉)와 교차 검토해 볼 때, 보다 의미 있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1〉 동아일보의 사례에서는 토픽 1(미술과 전시)의 비중이 눈에 띈다. 1990년대와 2000년대 초반 동아일보가 여성 화가의 전시·개인전을 활발히 보도하면서 “여류 화가”, “여류 서예가” 등의 표현을 자주 사용한 결과라고 가늠해 볼 수 있다. 그런데 앞서 확인하였듯이, 동아일보의 “여류” 관련 기사 수는 1990년대 이후 빠르게 감소했다(〈그림 5〉). 두 결과를 함께 놓고 보면, 2000년대 이후 동아일보에서 “여류”라는 용어가 줄어든 것은 미술계 내부에서 “여류”라는 표현을 자제한 결과였을 가능성이 있다. 아니면 반대로 동아일보가 미술 기사에서 의도적으로 성별 표식을 줄여 나간 덕분에 미술 영역에서 만큼은 “여류” 호칭이 조기에 사라졌다고 볼 여지도 있다. 즉, 성차별적 용어의 사용량이 많았다고 해서 해당 언론사가 젠더 의식이 부족하다고 평가절하하거나, 반대로 감소했다고 하여 보도 환경이 개선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다.

한국일보와 한겨레신문의 경우는 토픽 8(바둑과 승부)의 비중이 특히 높게 나타난다(〈그림 22〉, 〈그림 23〉). 2010년대 들어 바둑 토픽의 비중이 전반적으로 상승한 흐름(〈그림 15〉)에서 볼 때, 두 신문사가 바둑 관련 뉴스를 비중 있게 다루면서 “여류 기사”, “여류 기사전” 등의 표현을 자주 언급한 결과라 할 수 있다. 한겨레신문은 9개 신문사 중 “여류” 표현을 가장 적게 사용한 언론사였지만(〈표 1〉), 바둑 분야에서만큼은 기존의 관행을 따르며 “여류”의 표식을 유지해 온 것이다.

한편 국민일보는 또 다른 양상을 보인다. 〈그림 24〉에서 토픽 5(치유의 낭송)의 비중이 유독 두드러지는데, 기독교 계열 신문이라는 정체성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토픽 5에 속한 기사 중 다수는 시 낭송회, 간증 형식의 강연, 신앙 체험을 나누는 모임 등에 참여한 여성 작가들에게 “여류”의 칭호를 붙였다. 신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여류” 작가의 위로, 헌신과 봉사적 서사가 반복되면서, 종교적 정체성과 감정의 이미지가 결합하는 경

향을 보인 것이다. 같은 토픽이라도 다른 신문사에서는 문학·문화 기획으로 배치될 법한 내용이, 국민일보에서는 종교 공동체의 미담과 신앙 실천의 사례로 강조된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처럼 연도별 추이, 토픽 구조, 언론사별 차이를 교차해 보면, “여류”라는 표현은 사용량만 줄어든 것이 아니라, 직군·의제·매체에 따라 서로 다른 위치에 남겨지고 조정되어 온 표식임을 알 수 있다. 문학·미술·정치·외교와 같은 일부 영역에서는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성 중립적 호칭으로 전환이 진행된 반면, 바둑이나 공연예술 그리고 역사적 인물과 연계된 보도에서는 새로운 역할을 부여받으며 살아남았다. 또한 각 언론사들은 토픽 구성과 비중에서 상이한 모습을 보이며, 선택적 젠더 마킹의 지형을 형성해 왔다. 다음 장에서는 분석 결과를 토대로 “여류” 표현의 재편 과정이 어떤 시사점을 던지는지 논의하고자 한다.

5.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1990년부터 2025년까지 35년간의 신문 기사 데이터를 통해 ‘여류(女流)’라는 성차별적 호칭이 한국 사회에서 어떻게 쇠퇴하고, 동시에 변칙적으로 생존해 왔는지를 구조적 토픽 모델링(STM) 기법으로 추적하였다. 분석 결과는 성차별적 언어가 점진적으로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직군과 맥락으로 재배치되며 명맥을 이어가는 양상을 보여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여류”는 문학, 미술, 정치 등 주류 공론장에서는 2000년대 이후 급격히 자취를 감추었다. 이 결과는 한국 언론 지형의 긍정적인 대목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주목해야 할 점은 용어의 퇴장이 모든 분야에서 균일하게 일어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중에서도 바둑 영역에서의 결과는 성차별적 호칭이 특정 직업 안에서 어떻게 살아남게 되는지 보여준다. 그 결과, 여성 기사들이 활약하는 무대는 “여류”라는 표식이 불

은 별도의 경기장으로 설정되었다. 이 과정에서 “여류 기사”라는 말은 바둑계 여성들의 성취를 가시화하기도 했지만, 남성 기사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지 못하는 존재로 고착화하는 효과도 불러일으킨다. 2020년 여성 바둑기사 최정 9단의 인터뷰는 이러한 역설을 잘 보여주고 있다.

“바둑엔 성별차 없고 실력차만… 女帝 아닌 皇帝 될래요”(문화일보 2020.7.10.)
 최정(24) 9단은 여자바둑계에서 ‘천하무적’이다. 별명은 ‘바둑여제’ […] 최 9단은
 “바둑에서 성별의 차이는 없고 실력의 차이는 있다고 믿기에 여제를 넘어 황제
 라는 칭호를 얻고 싶다”면서 “남녀 통합 메이저대회에서 꼭 우승하겠다”고 다짐
 했다. […]

(최정 9단은) 2011년 제5기 지지옥선배에서 8연승을 달렸다. 지지옥선배는 여류
 기사 12명과 45세 이상 남자기사 12명이 팀을 이룬 반상의 성 대결. (이하 모든
 인용문의 밑줄은 연구자 강조 표시)

위 기사는 “바둑엔 성별차 없고 실력차만” 있다는 최정 9단의 발언을 제목으로 내세우면서도 본문에서는 “여류기사 12명”과 “남자기사 12명”이라고 서술한다. 여성 기사의 선언과는 달리 “여류 기사”는 여전히 표지된 수행자로 재현된다. 이처럼 “여류”라는 용어는 여성 기사들의 성취를 부각하면서도, 동시에 그 성취를 여성만의 영역에 가두는 이중적 장치로 기능한다. 이러한 결과는 미디어가 성별화된 직업관을 재현할 때, 특정 영역을 표지(Marked)된 범주로 묶어두는 오랜 질서(Goffman, 1979)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을 방증한다.

한편 “여류”는 오늘날 현직 여성 전문가를 부르는 말에서는 눈에 띄게 줄어들었지만, 과거의 여성 인물을 이야기할 때는 오히려 자주 등장하는 경향을 보였다. 역사 속 여성 토픽의 비중이 2010년대 이후 커진 점과 더불어, <표 2>의 TF-IDF 기준 상위어 가운데 나혜석이 가장 높은 값을 기록한 결과 역시 “여류”가 과거의 여성들을 소환하는 매개체로 활용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생명 이미지 표현한 여류화가 박래현(동아일보, 2021.10.12)

“여자는 화가가 될 수 없다.” 이는 조선왕조 시대의 불문율이었다. [...] ‘여류화 가’의 탄생, 새로운 시대가 펼쳐지기 시작했다. 나혜석과 백남순, 그리고 박래현 과 천경자. 이들은 일본 유학생 출신으로 전자는 유화가, 후자는 채색화가로 화 단에서 입지를 다졌다.

위 기사는 박래현과 함께 나혜석, 백남순, 천경자를 “여류화가”라는 범 주로 묶어두고 이들의 등장을 새로운 시대의 징후로 서술하고 있다. 여기 에서 “여류화가”는 단지 성별을 표시하는 기술적 용어가 아니라, 과거의 제약을 뚫고 등장한 여성 예술가들을 한 시대의 상징으로 묶어 세우는 말 로 기능한다. 동시에 이 표현은 여성 화가들의 활동 무대를 조선왕조의 불 문율을 깨고 등장한 여류라는 배경 안에 위치시키면서, 특정 시기의 예외 적 인물로 보이게 만드는 효과도 낳고 있다.

위 맥락에서 ‘여류’는 동시대의 직업적 주체로 호명하는 표현이라기보 다, 과거의 여성 예술가나 지식인을 회고적으로 떠올리게 하는 표지로 기 능한다. 여기서 ‘여류’는 단순히 성별 정보를 덧붙이는 명칭이 아니라, 근 대 문예장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되었던 낡은 분류 범주를 현재로 호출하는 명명 방식으로 작동하는 것이다. 그 결과, 이 표현은 여성‘들’을 현재적이 고 능동적인 행위자로 제시하기보다는, 이미 지나간 시대에 속한 인물이나 기념되어야 할 문화적 대상으로 배치하는 효과를 낳는다. 다시 말해 ‘여류’는 직업적 정체성을 정확히 지시하는 중립적 호칭이라기보다, 대상 에게 복고적이고 장식적인 어조를 덧씌우는 수사적 장치로 소비되며, 이 점에서 해당 표현은 오늘날에도 성별화된 표지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은 ‘여류’가 단순한 잔존 표현이 아니라, 특정 대상을 역사화하 고 장식화하는 방식으로 재기능화되고 있음을 보였다. 즉, ‘여류’라는 용어 는 단순히 사용 여부의 차원만이 아니라 사용 맥락과 효과의 차원에서 검 토해야 하는 대상임을 시사한다. 이처럼 낱말의 사용법이 변화한 결과, 현

대 사회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표현이 다시 소환되기도 한다. 좋은 사례로 1920년대 여성 비행사 권기옥을 지칭하던 “여류비행사”라는 말은 오늘날 여성 비행사를 지칭하는 용어로 좀처럼 쓰이지 않지만 과거를 이야기할 때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한국 최초 여류비행사, 조국독립 꿈을 창공에 띄우다(중앙일보, 2025.5.7)
1925년 2월 기옥은 원난항공학교 제1기로 졸업했고 비행과 12명 졸업생 중 유일한 여성이자 한국 최초의 여류비행사가 되었다. [...] 권기옥 지사는 불굴의 의지로 어려서부터 가진 여류비행사라는 꿈을 이루었고 파란만장한 인생길을 걸으며 대한독립의 의지를 불태웠다.

위 기사는 “여류비행사”가 단순히 ‘여성 비행사’의 옛말이 아니라, 과거 특정 인물과 시대를 가리키는 고유명사처럼 활용되는 지점을 보여준다. 기고자는 “여류비행사”를 직업 범주가 아닌 한 인물의 정체성과 운명을 규정하는 이름처럼 사용한다. “여성 비행사”로 바꾸어도 정보 전달에는 문제가 없지만, 독립운동, 선구자적 여성상, 1920년대라는 역사적 시간대를 한꺼번에 호출하기 위한 상징적 표지로 활용한다. “여류”는 더 이상 여성 전문가를 뜻하는 일반 명사가 아닌, 여성 위인의 서사를 품은 수사로 재탄생한다.

이처럼 성차별적 언어는 사라지지 않았다. 직군을 옮기고 의미를 바꾸며 재배치되었을 뿐이다. “여류”는 두 가지 경로를 통해 여전히 명맥을 이어간다. 하나는 바둑처럼 특정 직업 안에 머물며 여성의 활동 무대를 젠더의 영역으로 포섭하는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과거의 특정 시기에 잠입하여 살아남는 것이다. 전자는 여성의 성취를 남녀 통합 경쟁과는 다른 급의 경기로 분리해 버리고, 후자는 여성을 특정 시간의 경계 안에 묶어 세우면서 현재와 동등한 전문가가 아닌 예외적인 존재로 보이게 만든다. 표면상 사라진 듯한 성차별적 용어가 실제로는 특정 직군과 과거의 시간대에 모여 있는 것이다.

한편, 본 연구의 결과는 오늘날의 미디어 환경에 몇 가지 시사점을 남긴다. 현재의 보도 준칙은 주로 성차별적 표현을 줄이거나 배제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으며, 2010년대 이후 “여류”라는 용어의 사용 빈도가 가파르게 감소한 것 역시 이러한 노력의 성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차별적 표현은 제재의 대상이 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소멸하지 않으며, 직군을 옮기거나 의미를 바꾸는 방식으로 생존하기도 한다. 또한 외부 기관이나 제도의 공식 명칭, 대회 명칭, 홍보 문구 등이 보도 기사를 통해 반복적으로 재생산되는 문제도 남아 있다. 이를 있는 그대로 옮겨 적는 관행은 결과적으로 해당 표현을 보도 준칙의 직접적 규제 범위 바깥에 두는 효과를 낳는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언론의 성평등 준칙은 특정 표현의 사용 여부를 점검하는 수준을 넘어, 그 표현이 사용되는 조건과 기능까지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성차별적 표현의 문제는 단순한 금지 여부의 차원이 아니라, 그것을 어떠한 위치에 놓고 어떤 맥락 속에서 설명할 것인가의 문제로 확장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대규모 신문 기사 데이터를 바탕으로 “여류”의 사용 양상과 의미 변화를 장기적으로 추적하는 데 초점을 둔 결과, 개별 기사 문맥에서 형성되는 어휘들의 미세한 의미 차이까지는 충분히 포착하지 못하였다. 가령 “여류”, “여성”, 나아가 “남성” 등의 표현이 동일한 기사 안에서 어떠한 문맥적 경쟁 관계를 형성하는지, 또 언론사별 편집 방향이나 기사 관행의 차이가 표현 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제한된 범위에서만 살펴볼 수 있었다. 후속 연구에서는 매체별 성향과 기사 유형의 차이를 보다 면밀히 비교하고, “여류”와 대체 표현들이 실제 기사 문맥에서 어떠한 의미 경쟁을 벌이는지 추궁해 볼 필요가 있다. 나아가 이러한 후속 연구가 축적된다면, 성차별적 표현의 사용 여부를 넘어 사용 맥락과 재인용 관행까지 포괄하는 성평등 보도 방안 역시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 김지혜. 2022. “차별적 언어 표현 연구: 사회적 인식 변화에 따라 새롭게 인식된 차별 표현을 중심으로.” 『어문연구』 112: 5-37.
- 김희진 · 이수민. 2012. “언론에 재현된 여성 경제리더의 모습: 주요 일간지의 기업 고위직 여성들에 대한 인터뷰 기사를 중심으로(1990~2011년).” 『미디어, 젠더&문화』 23: 79-110.
- 박은하. 2019. “직업 차별적 언어 사용과 인식에 대한 말뭉치 용례 연구.” 『사회언어학』 27(4): 89-116.
- 서재철 · 문민권 · 박찬우. 2018. “‘여성 감독’의 탄생: 미디어가 박미희/이도희 감독을 재현하는 양상에 대한 젠더 및 여성주의 관점의 비판적 논의.”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31(4): 43-64.
- 안상수 · 백영주 · 양애경 · 강혜란 · 윤정주. 2007. 『성차별적 언어 표현 사례조사 및 대안마련을 위한 연구』. 서울: 국립국어원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양영하. 2011. “신문 언어의 공공성 척도와 사례 분석.” 『한말연구』 28: 115-140.
- 유상건. 2016. “여성, 스포츠 그리고 미디어.” 『한국여성체육학회지』 30(4): 39-53.
- 이정복. 2010. “한국 직업 이름의 위계와 차별.” 『우리말글』 49: 1-36.
- 이주행. 2003. “신문의 언어 사용 실태와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 『국어교육학연구』 16: 1-41.
- 전국언론노동조합 성평등위원회. 2023. 『젠더 보도 가이드라인』.
- 조태린. 2017. “방송언어 개선 연구의 현황과 발전 방향.” 『한국어학』 74: 169-197.
- 허은. 2013. “노동시장 계층별 성별직업분리에 관한 연구: 수직적/수평적 분리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47(2): 241-266.
- Blei, D. M., Ng, A. Y., & Jordan, M. I. 2003. “Latent Dirichlet Allocation.” *Journal of Machine Learning Research* 3: 993-1022.
- Ette, M. 2020. “Journalism and Gendered Mediation.” In T. P. Vos & F. Hanusch (Eds.), *The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Journalism Studies*. Hoboken, NJ: Wiley-Blackwell.
- Formanowicz, M., Sczesny, S., & Moser, F. 2013. “Side Effects of Gender-Fair Language: How Feminine Job Titles Influence the Evaluation of Female Applicants.”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43(1): 62-71.
- Gaucher, D., Friesen, J., & Kay, A. C. 2011. “Evidence That Gendered Wording in Job Advertisements Exists and Sustains Gender Inequal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01(1): 109-128.

- Gidengil, E., & Everitt, J. 1999. "Metaphors and Misrepresentation: Gendered Mediation in News Coverage of Canadian Leaders." *Harvard International Journal of Press/Politics* 4(2): 48-65.
- Goffman, E. 1977. "The Arrangement Between the Sexes." *Theory and Society* 4(3): 301-331.
- _____. 1979. *Gender Advertisements*.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Grimmer, J., & Stewart, B. M. 2013. "Text as Data: The Promise and Pitfalls of Automatic Content Analysis Methods for Political Texts." *Political Analysis* 21(3): 267-297.
- Ozer, A. L. 2023. "Women Experts and Gender Bias in Political Media." *Public Opinion Quarterly* 87(2): 293-315.
- Roberts, M. E., Stewart, B. M., Tingley, D., & Airoldi, E. M. 2013. "The Structural Topic Model and Applied Social Science." *In Advances in Neural Information Processing Systems Workshop on Topic Models: Computation, Application, and Evaluation*.
- Roberts, M. E., Stewart, B. M., & Tingley, D. 2019. "stm: An R Package for Structural Topic Models." *Journal of Statistical Software* 91(2): 1-40.
- Tuchman, G. 1978. "The Symbolic Annihilation of Women by the Mass Media." In G. Tuchman, A. K. Daniels, & J. Benét (Eds.), *Hearth and Home: Images of Women in the Mass Media* (pp. 3-38). New York, NY: Oxford University Press.
- Verweken, D., Hannover, B., & Wolter, I. 2013. "How Gender Fair Job Descriptions Impact Children's Perceptions of Traditionally Male Jobs." *Social Psychology* 44(4): 258-266.
- 동아일보. 1926. "中國蒼空에 朝鮮의 鵬翼." <동아일보>. 1926.5.21, 2면.
- 동아일보. 2021. "생명 이미지 표현한 여류화가 박래현(윤범모의 현미경으로 본 명화)." <동아일보>. 2021.10.12. <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211011/109654708/1> [검색일: 2026.2.3.]
- 정세영. 2020. "바둑엔 성별차 없고 실력차만... 女帝 아닌 皇帝 될래요." <문화일보>. 2020.7.10. <https://www.munhwa.com/article/11193230> [검색일: 2026.2.3.]
- 중앙선데이. 2025. "한국 최초 여류비행사, 조국독립 꿈을 창공에 띄우다." <중앙일보>. 2025.5.7.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33334> [검색일: 2026.2.3.]
- 한국기자협회·국가인권위원회. 2011. "한국기자협회 인권보도준칙." https://www.journalist.or.kr/news/section4.html?p_num=7 [검색일: 2026.2.3.]

Abstract

Marking Women Experts
– Gendered Naming of Women Experts
in Korean Newspapers, 1990~2025

Bae, Hongchul
(University of Seoul)

This study analyzes 9,089 articles containing the term *yeoryu* (女流, denoting female professionals) from nine major Korean national dailies (1990-2025), sourced from the Korea Press Foundation's BigKinds database, to elucidate the persistence of a gender-discriminatory label. Employing word frequency, TF-IDF metrics, and Structural Topic Modeling (STM), it examines temporal and outlet-specific shifts in thematic structures. Findings reveal a decline in *yeoryu* usage across politics, diplomacy, literature, and fine arts, contrasted by strengthened associations or surges in Go (baduk) and select performing arts. The term endures as a conventional modifier for historical figures, evoking archaic connotations. These results suggest gender-reporting guidelines that monitor profession- and era-specific reallocations of such terms, rather than relying solely on simple usage checks.

Key words: *yeoryu*, women experts, gender-equal reporting, reporting guidelines, newspaper articles, structural topic modeling

- 투 고 일 : 2026년 2월 26일
- 최초심사일 : 2026년 4월 1일
- 게재확정일 : 2026년 4월 17일